서울 구민신문

(2026년 11월23일 월요일 4면)

박지선 송파구의원

배달플랫폼노동조합과 간담회

배달노동자 안전과 권익 보호 위한 지원방안 모색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논의



박지선 송파구의원(진보당, 위례동·장지동)은 지난 10일 송파구의회에서 배달플랫폼노동조합 동부지회 조합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배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배달노동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청취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마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지만, 정작 사고 이후에는 생계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와 휴식을 보장받기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 특히 폭염과 한파에도 도로 위에서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을 설명하며,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휴게공간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노동조합은 이동노동자 쉼터의 상설 운영과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제정 등을 제안했다.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의 요구가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박 의원은 송파구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이동노동자 무더위 쉼터의 운영 경과를 설명하고, 내년도 폭염 대응 사업과 연계한 쉼터 운영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상설 쉼터에 대해서도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와 지역 여건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는 노동자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송파구 실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타 자치구 사례를 검토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지선 의원은 "배달노동은 이제 주민들의 일상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중요한 생활서비스가 되었지만, 그 일을 담당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휴식은 여전히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무게있게 받아들이고, 송파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동노동자 쉼터를 비롯한 지원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노동자들의 안전과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